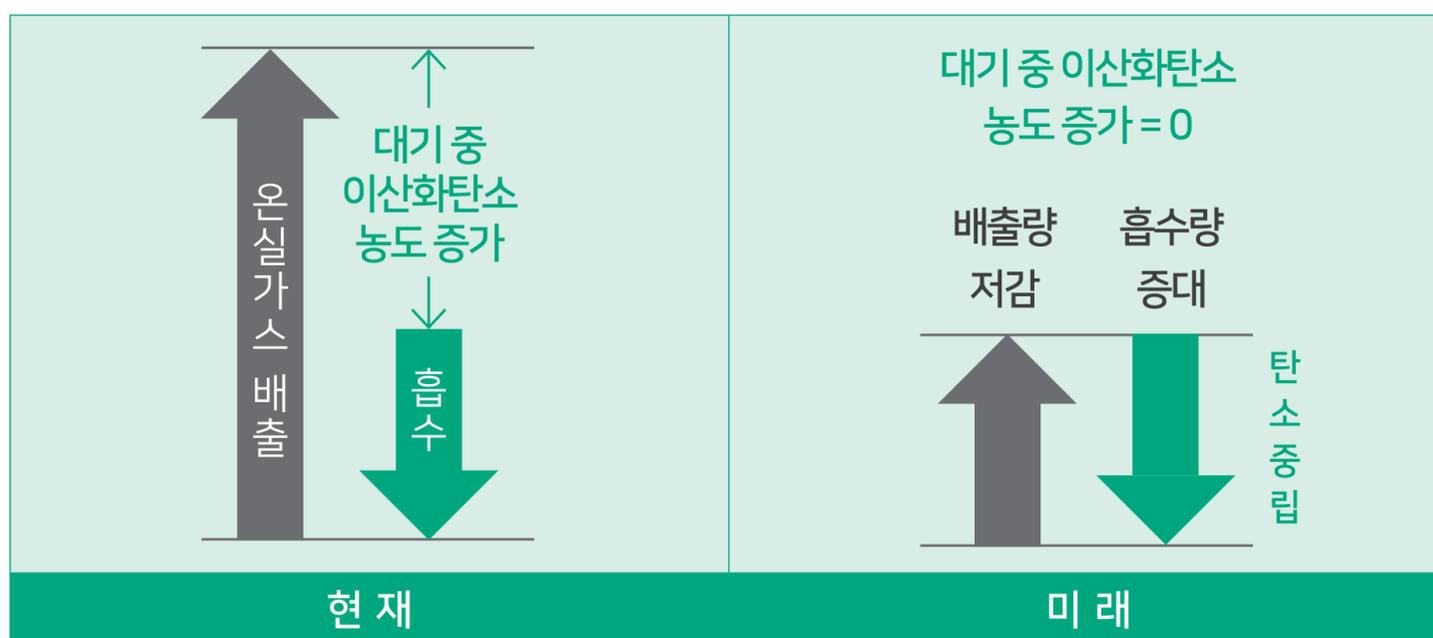


# 탄소중립과 우리 생활

## 탄소중립이란?

탄소중립은 화석 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. 즉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'0'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'넷 제로(Net Zero), 탄소 제로(Carbon Zero)'라고도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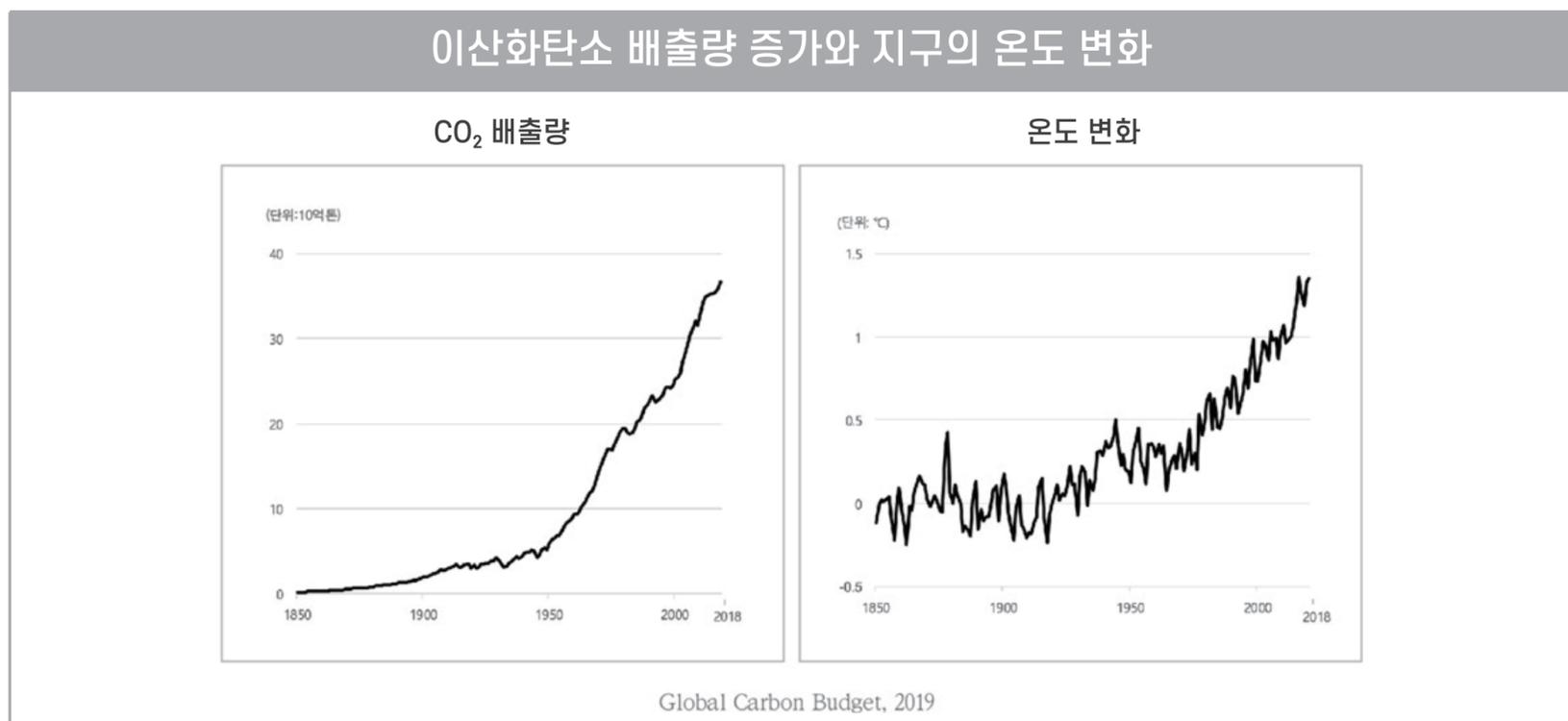
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차량과 공장의 화석 연료 연소 등과 같은 인위적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,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습지, 숲 복원 등 흡수원을 확대해 흡수량을 늘리거나 네거티브 배출 기술(Negative Emissions Technique, NET)\*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한다.



\* 네거티브 배출기술, NET: 발전소,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거하는 기술을 말한다.

# 왜 탄소중립은 필요한가?

국제 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, 2010년 칸쿤 합의에서 2°C억제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. 이어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(1850~1900년 평균)대비 2°C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, 나아가 1.5°C 아래로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.



출처: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(부처합동,2020)

이후 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(IPCC)’는 2018년 10월 [지구온난화 1.5도 특별보고서]를 발간하여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이기 위하여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.5°C이하로 억제해야 하며,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‘0’이 되는 탄소중립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.

**지구 평균온도 상승 1.5°C와 2°C의 주요 영향 비교**

구분	중위도 극한 온난일	고위도 극한 한랭야	해수면 고도	산호초	해양 어획량	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는 종		
						식물	척추 동물	곤충
2°C 온난화	4.0°C 상승	6.0°C 상승	0.3~0.93m 상승	99% 위험	300만 톤 감소	16%	8%	18%
↑	1.0°C	1.5°C	0.1m	20~29%	150만 톤	2~3배		
1.5°C 온난화	3.0°C 상승	4.5°C 상승	0.26~0.77m 상승	70~90% 위험	150만 톤 감소	8%	4%	6%

출처: 지구 온난화 1.5°C 특별보고서 해설서, 기상청

※ 참고자료 및 디자인: 환경부 ‘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’

# 상명 에코 캠페인

## 지속가능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안내서



실천 방법	이산화탄소 감축량(연간)
음식 남기지 않기(도시락 이용)	4.3kg/인
계단 이용하기	9,757.9kg/대
텀블러 사용하기	3.5kg/인
개인 손수건 사용하기	26kg/인
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하기	4.6kg/회의
등하교 대중교통 / 자전거 이용하기	285.4kg/대
쓰레기 줄기 / 분리수거	88kg/인

※ 해당 수치는 환경부 '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' 기반하여 작성함

